

매매가 1년새 3% 상승... 광주 아파트 중소형이 대세

중소형 아파트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용면적 62.8㎡ 이하의 중소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월 중 KB주택가격동향'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을 100이라 놓고 봤을 때 소형(전용면적 40㎡ 미만)과 중소형(40~62.8㎡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3.1, 103.0을 기록했다. 1년 새 아파트값이 3% 이상 오른 것이다. 이들 소형 및 중소형아파트의 매매가는 7개월

실수요자 중심 큰 인기

대형은 1% 상승에 그쳐

소형 위주 분양도 늘어

전인 지난해 7월(101.7·100.8)과 비교해도 각각 1.4%, 2.2%가 올랐다.

반면 중대형(95.9~135㎡ 미만)과 대형(135㎡ 이상)아파트의 경우 2월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2.1, 101.0에 머물러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형 및 중소형아파트와 비교하면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폭은 더욱 벌어졌다. KB알리지의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동 모아단지 2차 아파트(전용면적 28.08㎡, 10층)는 지난 1월 537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층의 아파트가 지난해 2월 45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870만원(19.3%)이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전용면적 47.65㎡의 모아단지도 지난 1월 83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매매가는 7500만원(8층)으로 1년이 채 안돼 800만원(10.6%)이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같은 봉선동의 포스코더샵(전용면적 125.16㎡)의 경우 지난 1월 매매가는 4억2000만원, 지난해 3월 매매가는 4억180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 아파트의 대

형(전용면적 150.97㎡)평형도 지난해 12월 5억8000만원, 지난해 3월 4억9500만원을 기록, 실거래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세가(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 최고에 다다른 광주지역 특성상, 대형과 소형아파트 모두 전셋값 상승폭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광주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2013년 3월 100 기준)는 소형 103.1, 중소형(10.6%)이나 상승했다.

소형 및 중소형아파트가 매매시장을 이끌면서 분양시장에서도 이에 중형 규모의 단일 평형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반건설이 최근

분양에 들어간 월남2차 호반베르디움은 78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의 중소형 평수가 424가구나 된다. 이지건설은 을 하반기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용면적 59㎡로만 구성된 400가구를 분양하며, 대방노블랜드 역시 반기 나주 대호지구에 전용면적 59㎡의 단일 평형을 370가구 공급한다.

광주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소형과 중소형 아파트는 무엇보다 매매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다"며 "최근 분양되는 소형 아파트는 중대형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자랑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대의 불안 요소...1950선 박스권흐름

크립자치공화국의 러시아편인 주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와 서방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7일 중국 태양전지 업체 상하이차오리슬라가 지난 2012년 발행한 10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며 지난 주 코스피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번 디폴트는 중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디폴트로 추가적인 디폴트 가능성이 우려되는 소형 아파트는 중대형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자랑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95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지수를 돌이켜보면 2010년 유럽금융위기이후 1800~2000 포인트 사이에서 지루한 박스권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년동안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며 주식형펀드도 성장형펀드의 수익률은 부진한 반면 중소형주식펀드와 배당주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새봄이 인기를 모은 통신투자가 7~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는 16일 크립반도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미국의 3월 FOMC, EU정상회담 등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다. 크립자치공화국 독립 관련 주민투표 및 EU정상회담을 통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가능성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FOMC에서도 기존의 회의에서와 같이 100억달러 추가양적완화 확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인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며 1930선까지 과도한 조정을 보였기 때문

지난해 통신투자가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최근에는 설정액이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역으로 확장하며 '한일통상'과 '한중일 통상'과 같은 다양한 통신투자가 출시되고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윈도XP 사용 CD·ATM 등 보안 비상

내달 8일 서비스 종료...국내 PC 15% 해킹 피해 우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Windows XP) 운영체제(OS) 지원 종료(4월8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PC 보안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현금자동지급기(ATM)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대부분이 여전히 윈도XP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M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개인·기업 PC의 윈도XP 평균 사용률은 15.46%다. 이는 지난해 2월 33.52%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내 PC에 널빤지 대 중 한 대는 윈도XP 종료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PC뿐 아니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CD·ATM 등 자동화기기, 점포에서 계산·상품 관리에 쓰이는 POS(매장관리시스템) 등도 상당수가 운영체제로 윈도XP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윈도XP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임박함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에 설치된 CD·ATM기 8만여대 가운데 90% 정도가 윈도X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지점마다 최소 1대는 운영체제를 바꾸

도록하고, 미전환 기기에 대해서는 백신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CD·ATM기 860여대를 운영중인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운영체제를 상위 버전으로 바꾸고 있으며 NH농협은행 등도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운영체제 변경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 IT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 문제로 윈도XP 종료일 전에 보유한 PC 100%를 상위 버전으로 전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윈도XP 지원 종료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점점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IT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롯데백화점 광주점 봄맞이 연주회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에 마련된 특별 이벤트장에서 올해 한국예술재교육원 바이올린 부문 영재로 선정된 남린(조봉초 4년)을 비롯해 남빈(조봉초 2년), 한수연(불로초 4년), 한수민(불로초 2년), 홍지유(유안초 3년)양 등이 이향희 선생님의 지도로 '봄의 향연'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열고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증권 광주지점 19~20일 부동산포럼

삼성증권 광주지점(호남사업부장 김태현)이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19~20일 이틀간 '지역 맞춤형 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

16일 삼성증권 광주지점은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 비율로 고공행진하는 등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 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실무책임자와 개인 고객 대상으로 광주·전남에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증권 부동산 컨설팅을 담당하는 김은경 부동산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와 수도권 및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전

망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지점에서 금융기관 실무대상자와 개인 고객 대상자 포럼이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에 열리며 2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법인 CEO, CFO 대상 포럼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일 포럼에는 오펜석 투자전략 센터장의 금융시장 분석 및 투자전략 강의도 열린다.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모닝 등 19만여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환경부는 레이 1.0 가솔린, 모닝 1.0 가솔린, 레이 1.0 Bi-fuel LPI, 모닝 1.0 Bi-fuel 등 경차 4종 19만6950대를 대상으로 기아차가 결함시정(리콜)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부품인 PCV 밸브 니들을 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문제가 됐다.

기아차는 2011년 1월17일부터 2012년 7월16일까지 생산된 4개 차종의 PCV 밸브 니들 재질을 17일부터 플라스틱에서 스틸로 무상 교체한다. 관련 문의(080-200-2000). /연필뉴스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마루, 데코타일(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여성가족부 인정
2014-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계속 모집중
강사: 김성희 010-9604-5377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애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채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